

윤 “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위협…북, 도발시 한미동맹 즉각 응징”

샌프란 APEC 참석 앞두고 AP통신과 인터뷰
북핵 등 안보·공급망 등 경제 문제 두루 언급
“북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ICBM 도약 의미”
“북 오판 막는 확실한 방법은 대북 억제력”
“경제 위기마다 극복한 APEC 리더십 발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APEC이 경제협력체인 만큼, 공급망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APEC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할 계획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 대응태세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 정찰위성’을 거론하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니아가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단계 더 도약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더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북러가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하게 될 공급망 위기,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화 등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우크



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며 “바로 지금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을 주도해온 APEC이 다시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

화, 혁신 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디지털 규범’에 대해 APEC 정상들과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혁면기자

여수시의회, 지난 14일부터 35일간 정례회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4일부터 35일간 제233회 정례회를 열어 각종 안건 처리에 나선다. 1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시민 제보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난달 시민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의회는 12월 1일과 4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펼치며, 5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을 포함한 전체 46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여수시 육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9건이 상정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김영규 의장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줄어들 예정”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지나치게 배정되지 않았는지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민주 “윤, 정치중립 위반 검찰총장 해임해야…탄핵은 논의 안해”

“특수부 검사 지키기, 군부독재 하나회 연상”
“정치중립 지키고 위법 검사 즉시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방한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법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한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고 검사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 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하지 않았고 논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